

## NEWS

### 벤·처·관·련

#### 중기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위한 기술관련 기관 업무협약 체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연구실 단  
계에 있는 신기술제품을 발굴하여 기  
술 평가 및 멘토링하는 「랩콘 플랜 민

· 관 협력지원사업」을 위해 6월 12일 기표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  
공단, 산업기술평가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업양극화 현상과 FTA 등 자유무역  
체제 가속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신기술제품 개발 없이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시 민·관 협력지원체제를 구축  
·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별도로 추진하던 기업지원 프로그램  
간의 협력과 전문가 인력 풀(Pool)의 공유가 가능해져서 신기술제품 발굴  
· 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내 최초 'LMO 인체·환경위해성 종합 평가센터' 준공

국내 최초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인체·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는 「LMO 위해성평가센터」가 6월 12일 충북 오창과학산업  
단지 내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호원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과 정우택 충북  
도시자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관련 기관·업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내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  
법)」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자원부가 지원·설립('04-'07년, 195억 원)한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LMO 위해성평가 시설이다.

센터는 LMO의 인체위해성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실,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한 격리 재배시설, 유전자분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국내 생산 및 수출입  
되는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다양한 LMO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약효 평가, 항암 후보물질 발굴 및 효능  
평가, 실험동물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도 담당하게 된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새롭게  
조립된 유전자를 포함한 생물체를 일컫는다.

#### 대학연구장비 이용 바우처 판매

중소기업청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전국 28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 3,000여 종을 60%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쿠폰)를 연중  
수시로 판매한다.

기업당 바우처 구매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소정해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장비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비이용 할인권(바우처)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인력  
종합검색시스템(trin.smba.go.kr)에 접속하고 자주 이용할 대학이나 연구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택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장비이용료의 40%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본격 가동

중기청(청장 이현재)과 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 kotra 사장(홍기화) 등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중소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애로인 통·번역을 전담 지원하는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개소식을 가졌다.

금번 통번역센터 개소는 최근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소위  
3중고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의 근본적인 애로부터  
해결하겠다는 정부·수출유관기관의 강력한 지원의지가 담긴 「수출중소  
기업종합지원방안(경제조정회의 의결, '06. 11. 27)」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을 통한 수출협상력 제고 필요성이 절실함에서 비롯  
되었다.

\* 지원가능 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특수어권(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자세한 사항은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 02-6000-5493)로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창업패키지 사업 본격 추진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기업으로 육성한  
'기술창업패키지사업'을 고려대학교 등 전국 12개 대학을 통해 금년도 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기술창업패키지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수요증대로  
서울지역에서 건국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2개 사업단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기술창업패키지사업'은 지난 '05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종합창업연계지원사업으로 우수한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교육, 자금, 입지, 경영·기술지원서비스의 종합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기술창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지금까지 563명이 이수하여 271명이 창업에 성공하였다.

### 특허청, 차세대반도체 특허전문정보 계간지

#### 'Next Semicon' 창간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관심이 집중되는 반도체 분야의 시사 기술 주제를 정하여 관련 뉴스를 정리하고 기술의 이론적 설명 및 응용분야를 정리하며 관련 특허동향을 분석하는 'Next Semicon'을 창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시사 반도체'에서부터 반도체 분야 관련 주제의 해설이 포함되는 '반도체 특허판례 분석', 분기별 반도체 특허통계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반도체 특허 통계 서비스' 및 '반도체 특허정보 분석'에 이르는 내용을 담아 반도체 신 기술 및 최신 응용분야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반도체 특허전문정보 계간지인 'Next Semicon'을 창간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발간되는 Next Semicon 창간호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를 시사 기술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뉴스, 이론적 설명, 주요 응용분야와 특허동향을 제공하며 반도체 분야의 특허통계 및 판례통계 등을 제시하여 관련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기 독자브랜드 개발 4년 소요

중소기업이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 안착시킬 때까지 기간은 평균 4년, 비용은 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산하 기은경제연구소가 고유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 1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랜드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때까지 4~7년 걸린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평균 4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 브랜드 1개에 투자되는 비용은 '1억 원 이하'가 32.9%로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는 6억 9,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 CAC 국제협약체 결성 추진

동명대학교(총장 양승택)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CAC 국제협약체(가칭 서울

어코드)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IT인력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엔지니어링 관련 교육 분야의 국제 공학교육인증은 워싱턴 어코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컴퓨터·정보기술 분야는 아직 국제적인 협약체를 통한 교육표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CAC 국제협약체 추진 주도는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 한국IT 첨단기술개발원, 여성 IT인력 양성

최고급 여성 IT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 IT기업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설립한 한국IT첨단기술개발원이 최근 본격적인 교육사업에 돌입했다. 여성 IT기업들이 인력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금에 참여했던 기업은 인트모아와 범성엔지니어링, 위니텍 등 대구경북 지역 10여 개 여성 IT기업. 이들은 1억여 원의 자금을 모아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교육장을 임대하고, 50여 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들여왔다.

기술개발원 설립을 주도한 한국IT여성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김명화)는 대구경북여성교육연합회(회장 박남희)와 함께 IT교육을 받을 교육생을 모집, 최근 40명을 대상으로 고급 프로그래머와 사무자동화 과정을 시작했다.

현재 남성 수강생도 받고 있으나 여성 IT인력양성이 본질적인 취지이다. 이들은 앞으로 하루 8시간, 7개월 동안 전문강사로부터 강도높은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을 수료한 뒤 희망하는 IT기업으로 100% 취업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성 IT인력양성을 위해 개발원 운영비로 3,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 SW개발자 경력 관리·평가 사업 급부상

소프트웨어(SW) 개발자와 이를 찾는 프로젝트 수행 업체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SW 개발자 경력 관리·평가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SW 기술자 신고제도를 운영해 SW 개발자들의 경력 체계화에 나서고 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를 담은 SW 산업 진흥법안은 이르면 이번 입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SW 개발자들은 그간 참여한 프로젝트를 경력으로 증명할 수 있어 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업체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발자를 선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프로젝트수행능력검정시험(TOSTEC)도 개발자의 능력을 구체적인 점수로 나타내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자격증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SW를 얼마만큼 잘 다루는지는 증명하기 어려워 프로젝트에 곧바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SW 개발자의 경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데브피아(대표 홍영준)가 하반기부터 SW 개발자 인력 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 SW 개발자를 연계하는 스태핑 서비스 '아이엠 데브'를 진행한다. SW 인력 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개발자와 업체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한 경력자를 연결시켜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 2007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47개사 1,670억 원 자금 확보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는 '2007년 투자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47개 업체들이 총 1,670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정부(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부품·소재기업이 벤처캐피털 등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올해 민간 투자금은 954억 원이었으며 정부가 이에 맞춰 716억 원을 지원했다. 민간 투자자금을 기관별로 보면 은행이 461억 원(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벤처캐피털업체인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가 각각 255억 원(26.8%)과 175억 원(18.4%)으로 뒤를 이었다.

## IT특허 및 지재권 전략 세미나 개최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특허폴 결성을 위한 'IT 특허폴과 지재권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도형 특허폴 결성방안(특허청 최성진 사무관) △DMB 특허 대응현황(한국정보통신협회 이근구 센터장) △특허와 표준을 연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전략(기술표준원 선 향 박사) △국내 IT분야의 특허폴 모델 제안(건국대 정연덕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첨단 IT 기술을 자랑하면서도 해외 특허폴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이때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술력과 특허수준에 맞는 지재권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IT 특허전략으로 특허폴 결성을 위한 모색의 자리 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 KIST 가상세포 개발 성공

과학기술부 바이오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게놈정보활용통합생물공정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李相燁, 43세, 특훈교수) 교수팀은 미생물의 게놈정보에 근거해 컴퓨터 기반의 가상세포 실험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여 유용 물질인 숙신산(succinic acid, 일명 호박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맨하이미아 가상세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과학기술부 게놈정보 활용 통합생물공정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중인 이 연구는 숙신산 생산 등의 결과가 매우 우수하여 국내외 기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바이오 제품의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 ETRI, 출연연 첫 품질인증제 도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품질인증제(Q-마크)를 도입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1일 △'Q-마크' 품질인증제 도입 △기술이전 매너지 지정 △온라인 방식의 적시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도입 △원스톱 고객지원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객만족(CS) 경영 및 고객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하는 'Q-마크'는 연구결과의 품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품질측정기준 및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고 연구단별로 특성에 맞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TRI는 이와함께 연구위탁고객, 성과이용고객, 협력고객 등에게 계약체결 또는 기술지도 직후 등 일정 단계마다 자동으로 설문문을 주고, 응답하는 고객 만족도지수(CSI) 적시 조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한국생산기술원, 금형·주물 3D 시뮬레이션 구축

금형·주물 공정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IT 설계 기술이 개발되었다.

한국생산기술원 디지털설계센터의 최정길 박사팀은 웹 기반의 최첨단 부품 생산시뮬레이션인 '사이버엔지니어 U24(이하 U24)' 를 구축하고 국내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주물·금형·소성·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의 생산기반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이 상당부분 맡아왔으나 여전히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부품 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U24는 부품생산과 관련한 모든 공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해 실시간으로 공정 최적화를 구현했다.

보통 기계 부품은 700~1,500도 정도로 끓는 금속 용탕을 모래로 만든 틀에 부은 뒤 식혀서 만드는 데 쇠물이 얼마동안 어떻게 열이 빠져나가면서 식느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 U24는 바로 이럴 때 재료와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열이 빠져나가는 경로와 시간을 컴퓨터 작업으로 미리 알 수 있게 해 준다. 다른 조건을 넣어주면 그 조건에서 부품이 나오는 것을 예측해 주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미리 구상해서 실제 부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부품 불량률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된다.

U24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사람이 일일이 수치를 집어넣어야 했던 기존 시뮬레이션과 달리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스스로 최적의 부품 설계 과정을 제시해준다.

### ‘나노넷(www.nanonet.info) 서비스 시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이용자 정보수요 충족,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을 겨냥해 나노넷 개편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복잡한 메뉴가 간소화됐고 통합검색 기능도 강화됐다. 또 나노인력·나노영향 등 특성화된 정보 콘텐츠가 추가됐으며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이 신설돼 회원 간 정보교류가 원활하도록 꾸며졌다.

나노넷은 지난 2002년부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나노기술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ISTI 나노정보분석팀에서 구축, 운영 중이다.

### 광주과기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육성사업 선정

광주과학기술원(GIST·원장 허성관)은 최근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육성 사업에 선정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3년간 7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GIST 소속 문화기술연구소(센터장 우운택)는 최근 문광부가 실시한 2007년도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육성사업 공모에서 '실감 상호작용형 차세대 u-Book 저작 툴 키트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제출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GIST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사업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돼 온 문화콘텐츠 산업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는 향후 기존 출판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유비쿼터스 전자책(u-Book)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수출지원단 발대식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배희숙)가 여성 벤처기업의 수출을 단계별로 돕는 '수출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출지원단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10개사를 선정해 △전략 수출시장

선정 △수출가능성 타진△수출업무 대행 등 3단계에 걸쳐 통·번역과 전자 카탈로그 제작 등을 돕는다.

코트라 시장전략팀장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수출지원팀장, 한국무역협회 무역현장지원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장개발팀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전북도, 첨단 부품·소재 공급 단지 조성사업 첫 사업수주

전북도가 3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의 3대 특화사업인 '탄소밸리 조성사업' 이본격 가동 될 전망이다.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7년 지방기술혁신 사업 신규사업 선정결과 전북도에서 신청한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중 1위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R&D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비 20억 원씩 6년 동안 총 120

역원이 지원되는 대단위 R&D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에 지원되는 최대 R&D 공모사업이다. 전북도에서는 지역의 R&D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1년여 동안 산·학·연과 협력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지역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 경기도첨단기업유치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경기도첨단기업유치단은 6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TFT-LCD 액정 제조업체인 머크사 외 5개 업체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독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 투자환경설명회는 머크, 프루덴베르그 등 LCD, 자동차부품 등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 우수한 인프라, 투자환경 및 각종 외국인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첨단기업유치단은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북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식품회사인 란트만넨사와 투자상담을 가졌다.

란트만넨사는 우리나라 농협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으로서 스웨덴 49,0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출자한 회사로서, 스칸디나비아 연안국가중 가장 큰 음식, 에너지, 농업관련 전문회사이다.

## 광주 전략산업종합정보망 오픈

지역전략산업 관련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광주지역 혁신지원 DB통합 시스템 협의회(회장 남헌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가 지난해 6월 출범한 후 약 12개월 동안의 공동노력을 통해 개발한 '광주전략산업종합정보망(www.gsiis.or.kr)'을 오픈했다.

동 시스템은 광주지역의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디자인 산업, 문화/IT산업에 대한 기업체, 장비, 인력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등 13개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확보한 약 3,500여 건의 정보를 DB화하였다.

## 울산시, 고기능성 에어캡 포장재 기술 개발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원장 임육기) 정밀화학사업단과 (주)한국메탈(대표 이정우)은 울산지역 기업체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발굴 사업

으로 '고기능성 에어캡(Air-Cap) 포장재 공동 연구 협약식'을 가졌다.

양기관은 이에따라 오는 2008년 말까지 총 1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고기능성 에어캡 포장재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기존 폴리에틸렌계 에어캡 포장재는 투명성, 가공성 등이 우수하나 내구성 이 약해 제품손실 등의 단점을 갖고 있으나 '고기능성 에어캡 포장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 제6회 성남창업경연대회 개최

성남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가진 창업예정자와 2006년 6월 1일 이후 설립된 성남 관내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분야는 ▲IT SoC 및 부품, 차세대이동통신, 메디/바이오,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기계, 화학, 생명공학, 섬유, 생활 및 지식 서비스(생활용품, 문화, 광고, 출판, 디자인, 캐릭터 등) 등이며 7월 5일까지 참가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공단과 MOU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5월 22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특구환경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

했다. 주요 내용으로 ▲특구 내 입주 연구기관, 벤처, 사업장, 교육기관 등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특구 내 각종 협의회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지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 또는 기술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세미나, 워크숍,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 비즈니스 정보센터 시장자료 활용법 실습프로그램 운영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벤처기업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제품의 시장 및 마케팅 분석시 시장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실습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덕특구 비즈니스정보센터소장 시장정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규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강의했다.